
서 평

한국 최초의 언어학적 ‘木簡’ 연구서

[서평] 이승재(2017),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 일조각, 616쪽.

한 경 호*

1.

이 기억은 상당히 생생하다. 2012년 02월 22일 아침이었다. 아침 신문을 보았더니, “새 신라 향가 한 수 찾아냈나”¹⁾란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바로 필자 또한 당일 참가하려고 하였던 ‘제43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이승재 교수가 2000년에 국립경주박물관의 미술관 터에서 발견된 목간이 신라 향가의 일부로 보인다고 주장하는 발표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필자도 한때는 석사학위논문을 고대한국한자음과 관련된 주제로 쓰려고 했던 바가 있었기에, 이러한 주제는 나름 흥미를 가져다주었으며, 발표 때에도 언론사의 기자분들이 와 계셨음이 기억난다.

그러다가 지난해인 2017년 12월 중순경, 이승재(2017)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에 대한 서평을 청탁받게 되었다. 필자는 역시나 그 시절 기억이 났기에 종일토록 통독을 하다가 본서의 6장인 ‘詩歌’의 일부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http://senior.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2/2012022265015.html.

본인 223~250쪽에서 그때에 발표하였던 문장 내용을 확인하곤, 새삼 이승재 교수의 그 구결학회 발표가 떠오르게 되었다.

사실 필자는 본 서평을 작성하기에 앞서, 일찍이 친필서명까지 되었던 이승재(2013) 및 이승재(2016)를 받아 나름의 조언이 갈망되었으되, 그 간 여건상 이승재 교수에게 큰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웠다. 이에, 본 서평을 쓰게 된 기회를 통해 독자들은 물론이고, 이승재 교수를 위해서도 필자의 생각을 나름 표하고자 한다.

2.

竹簡과 木簡의 통칭²⁾이 되는 ‘簡牘’의 새로운 발견은 전통적인 중국의 인문학 변천과정에 있어 큰 역할을 하였다. 가령 西漢代에 공자의 옛 저택에서 발견된 유가 경전들은 이후 양한대 전반에 걸쳐서 선진 이래 암송되어 전수된 경전의 今文과 古文 중 어떤 것을 더 중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게 한 계기가 되었다. 동한의 정현을 거치면서 그와 같은 출토된 簡牘은 『詩經』나 『周禮』처럼 유가 경전의 정본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으나, 그러하였던 簡牘의 대다수는 西晉의 멸망과 더불어 사라지게 되어, 후대에 위서가 전파되기도 하였다. 가령, 당대에 일본으로 전수되었다고 전해지는 『古文孝經』과 같은 문헌은 그 자체로도 당대 이후에는 중국에서는 소실되었으되, 당시 일본이 당나라로부터 전수 받았던 『古文孝經』은 오늘날도 일본에는 남아있으나, 당대에 이미 위서였음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중국에서 다시 簡牘이 연구에 주목을 받게 된 시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래이다. 상당

2) 더 넓게는 帛書까지를 포함.

히 많은 분량의 簡牘이 발견되었으며, 지금도 꾸준히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주목을 받은 簡牘은 戰國~西漢代の 현전본과 대비가 가능한 문헌(Ex: 馬王堆漢帛書·阜陽漢簡·上海博物館藏楚簡『周易』), 혹은 현전본의 내용과 연관되면서 相異를 보이는 문헌(Ex: 銀雀山漢簡『孫臏兵法』)들이었다. 가장 최근의 소식으로는 西漢代的 武帝 손자인 昌邑王 劉賀(BC.92~BC.59)의 묘에서 현재는 일실된 『三論』의 하나인 『齊論』이 확인되었다는 것마저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이 상당히 이른 시기의 簡牘이 꾸준히 발견되어 왔기에, 이에 대한 언어학적인 연구도 상당히 활발하며, 관련 학회 모임과 잡지, 저서들도 상당히 많다. 연구주제 또한 출토문헌의 해석을 위한 기초여야 하는 古文字學을 시작으로 문법·음운과 같은 언어학(전통적인 입장의 ‘小學’)은 물론이요, 기타 文·史·哲學의 세부 분야로도 상당히 나타날 정도이다.

이에 비해 한반도에서 출토된 주된 簡牘인 ‘木簡’의 상황은 상당히 다른 편이다. 일단 자료를 중심으로 본다면, 중국의 簡牘은 시기가 戰國時代~西漢代를 위주로 하며, 長沙 走馬樓吳簡과 같이 비교적으로 후대인 중국의 三國時代 吳나라의 문헌이 있다 할지라도, AD. 3세기 즈음이 된다. 이러한 점에는 대체로 東晉 이후에는 문서 작성에 종이(紙)가 주로 사용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 또한 이유가 되겠다. 그런데, 한반도의 木簡은 29~30쪽에 제시된 「목간 출토지 및 출토 현황」을 볼 시, 1975년에 발견된 경주 雁鴨池 목간이 첫 출토이며, 근래에 이르기까지 총 25개 지점에서 출토되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AD. 6~9세기 사이의 문헌들로서, 중국에서 출토된 簡牘이 형성되었던 시기와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틈이 존재하였다. 더불어, 수량으로 보아도 목간형태는 596점, 목간은 440점임에 비해, 중국은 走馬樓吳簡에서만 簡牘 9만여 점³⁾이 발견되어, 상당한

3) 이는 李零(2008:111)에 근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한반도의 고대 木簡은 중국의 簡牘과 같은 각도에서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상황은 좀 더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사정상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http://nl.go.kr>)를 통해 고대 한반도의 ‘木簡’에 관련된 서적을 보면, 주제가 역사와 관련된 서적이 총 23권, 언어학과 직접 관련된 서적은 사실상 필자가 논하게 되는 이승재(2017)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가 유일하다시피하기에, 대체로는 역사학에 치우쳐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간을 연구 자료로 삼아, 고대 한국어 연구에 대한 성과를 저서로 출판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은 후학들에게도 상당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론인 1장과 한국 목간 개관을 논한 2장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체로 순수 한국어학 관련 내용이 된다. 3장에서는 저자가 고대 한국어의 고유어 수사라고 판단한 木簡 내의 한자 표기를 다루었으며, 4장에서는 역시나 저자가 고대 한국어의 단위명사와 보통명사로 판단한 木簡 내의 한자 표기를 다루었다. 그러다가, 5장에서는 전체 木簡 중 일부를 골라 직접 해독하였으며, 6장에서는 저자가 詩歌로 판단한 木簡 내의 한자 표기를 다루었고, 7장에서는 木簡의 지역을 신라와 백제로 나누어 표기법의 차이를 논하였으며, 8장과 9장에서는 각각 한반도 전용으로 만들어진 韓國字를 정리하고, 그것이 일본에 끼친 영향을 논하였다. 그리고 10장에서는 木簡에 반영된 고대 한국어의 音韻論的 特徵을 논의하였으며, 11장에서는 系統論적으로 백제어와 신라어의 관계를 논하여 목간의 ‘표기법’으로는 백제와 신라의 차이가 컸으며, 언어적으로는 가까웠음으로 논의를 마쳤다. 12장은 결론으로서, 각 장에서 논해진 내용을 장장 39페이지로 논하였으며, 참고문헌 뒤에서는 결론 부분을 영어 및 일본어로 번역해 92페이지 내에 실었고, 나머지 부분은 부록으로 ‘한국의 고대 목간 판독 안’ 및 ‘찾아보기’이며, 책 전체는 616페이지가 된다.

이같이 구성된 필자의 서평대상인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는 사실 필자의 주 전공과 다소 거리가 있다. 필자는 소논문으로서 韓炘濤(2005·2010a·2010b·2014a·2015a·2015b)와 같이 고대한국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기는 하나, 이들은 상당수가 주 전공인 중국어 역사 음운론(Historical Chinese Phonology)의 한 분야인 상고음(Old Chinese)을 기준으로 응용한 연구성과이다. 따라서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의 서평에 있어서는 부득불 주로 중국어 역사 음운론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논할 것이다. 더불어, 논의에 사용되는 상고음과 중고음의 경우, 별도의 설명이 없을 시엔 일률적으로 韓炘濤(2009·2014b)에 기초한 독자 재구음임을 밝혀둔다.

3.

2010년대에는 초반 무렵부터 한국한자음, 특히나 고대한국한자음에 관련된 저서가 여러 권 출판되었다. 2010~2011년에는 이진호 교수가 일단은 중세한국한자음이긴 하되 한국한자음에 있어 가장 기초적으로 보아야 하는 河野六郎(1968) 및 伊藤智ゆき(2002/2007)⁴⁾를 연년으로 번역하여 출판하였으며, 2011년에는 정광 명예교수가 『삼국시대 한반도의 언어연구-고구려어의 역사비교언어학적 연구를 중심으로』를 출판하였다. 그러다가 2013년에는 상기되기도 하였던 이승재 교수의 『백제어 자음체계-한자음으로 본』이 출판되었으며, 2014년에는 남풍현 명예교수의 『고대한국어논고』가 출판되었고, 2015년에는 김무림 교수의 『고대국어 한자음』 및 엄익상 교수의 『(백제에서 현대까지)한국한자음 중국식으로

4) 伊藤智ゆき(2002)는 박사학위논문 원본, 伊藤智ゆき(2007)는 그 박사학위논문의 출판본이며, 伊藤智ゆき(2011)는 이진호역의 한국어판이다. 필자는 사정상 이 중에서 주로 伊藤智ゆき(2002)를 중심으로 인용해 논할 것이다.

다시보기』가 출판되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역시나 이승재 교수의 저작인 『한자음으로 본 고구려어 음운체계』가 출판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여러 저서들이 출판되는 과정 속에서 관련 저서를 두 권이나 출판하게 된 이승재 교수의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고대한국한자음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새롭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일단,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큰 틀에서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에 적용된 이승재 교수의 연구방식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우선, 이승재(2013·2016) 및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는 삼국시대~통일신라라는 중국어의 음운변화 과정상 거의 전적으로 중고음을 적용해 연구하였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전의 여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고대한국한자음을 연구함에 있어 시대상 고대한국어의 시기와 다소 거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상고음의 음가를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나,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에서는 순수하게 중고음을 감안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호평을 받을만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지금까지도 이설이 상당히 많은 중고음을 고대한국한자음 연구에 사용하면서, 중고음의 재구 근거를 단순히 伊藤智ゆき(2007/2011)에 근거하였음⁵⁾은 다소 문제로 여겨진다. 최소한 풀리블랭크(Pulleyblank, 1984)와 같이 전기중고음과 후기중고음으로 나누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 볼만한 점은 3장 「數詞」에서 논하여진 木簡에 나타난 고대한국어의 수사 재구음이다. 111쪽에 제시된 고대한국어 수사의 최종 재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5) 무엇보다도, 伊藤智ゆき(2002:40)에도 나와 있듯이, 伊藤智ゆき(2002)의 중고음 재구는 저자가 직접 재구한 것이 아니라 平山久雄(1967)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실상 간접인용이라는 점도 같이 감안해야 할 것이다.

伽第邑	*gadəp	*가듭(一日)
矣毛邑	*iterəp	*이더릅(二日)
新台邑	*saidəp	*새듭(三日)
刀士邑	*tasəp	*다습(四日)
日古邑	*nirkop	*닐곱(七日)
二口邑	*ni□kup	*닐곱(七日)
今毛邑	*jeterəp	*여더릅(八日)
以如邑	*jətəp, *jətəp	*인덱, *인답(八日)

필자는 주 전공이 한국어학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재구음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지는 않겠다. 다만 여기에서 눈여겨지게 되는 부분은 고대한국어의 자음으로 *d·g와 같은 유성파열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 자체로는 유성파열음을 음소로 지니고 있는 수사를 재구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여기에 사용된 목간 자료는 70쪽에서 논해졌듯 삼국시대 백제 영역이었던 益山の 彌勒寺址 1호 목간임에 착안, 이승재(2013)에서 제시된 백제어 자음에 [±voice]를 어떻게 想定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舌音(즉 대체로 치경파열음 t- t^h- d- 혹은 권설파열음 t- t^h- d-)에 대해 논의한 이승재(2013:188~192)를 보면, 그 요인으로 논한 것이 ‘최소대립’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제시된 예시는 상당히 많으므로, 그중에서 ‘차청(t^h-)과 전탁(d-)'의 최소대립' 및 ‘전청(t- t-)과 전탁(d- d-)'의 최소대립'의 용례를 각각 하나씩 간략히 제시해보겠다(이하 제시된 IPA로 적힌 중고음은 모두 韓炆濼(2014b)에 근거).

‘차청(t^h-) vs 전탁(d-)'

台 ɬ^hʌj-新台邑(미륵사지 목간), 仇台(사기) vs 臺 ɬ^hʌj-臺久用善(일본서기)

‘전청(t- t-) vs 전탁(d- d-)'

張 ㄸ[tɕaŋ, tɕaŋ²]-張茂(위서, 북사), 張塞(남제), 張威(송서, 남사),
張茂(사기) vs 長 ㄸ[tɕaŋ, ㄸdɕaŋ, dɕaŋ²]-長史(송서, 남제, 위서, 북사,
수서), 長福(일본서기), 酋渠長, 酋長(당서), 長貴, 長吏, 渠長, 酋長
(삼국유사)

당장 예시만 보고 판단할 시, ‘차청(t^h-) vs 전탁(d-)’ 중 ‘新台^h’의 ‘台’에 대응되는 고대한국어 음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위에서 볼 수 있듯,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에서는 *d^h와 같이 재구하였기 때문에, ‘臺’ ㄸd^h와 대립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전청(t- t-) vs 전탁(d- d-)’의 대응 중 ‘長’에 있다. 『廣韻』에 의거할 시, ‘長’은 反切이 총 셋으로서, ‘直良切(ㄸdɕaŋ)’일 때는 의미가 “오래되다, 멀다, 언제나, 오래토록이다(久也, 遠也, 常也, 永也)”이며, ‘知丈切(ㄸtɕaŋ)’일 때는 의미가 “크다(大也)”이고, ‘直良切(dɕaŋ)’일 때에는 의미가 “많다(多也)”이다. 그중, 구체적으로 ‘長’字의 백제 사료 관련 예시들을 보면, 독음을 특정하기 어려운 고유명사인 ‘長福’을 제외할 시, ‘長史, 酋渠長, 酋長, 長貴, 長吏, 渠長’ 등과 같이 관직명에 해당되는 어휘에 사용되었으며, 이때는 王力(2000:1559)에 제시되었듯, ‘知丈切(ㄸtɕaŋ)’이라 읽힐 때의 의미 중 하나인 ‘長子’가 파생되어 首領 내지는 ‘일을 맡아 관리함(主管)’이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모두 ‘知母養韻上聲’ ㄸtɕaŋ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분절음소 기준으로 볼 때, ‘張’(ㄸtɕaŋ, tɕaŋ²)과 차이가 없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같이 중고음 성모의 유무성 차이를 논하려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복수한자음을 용법에 따라 잘 분류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승재(2013)에서 논해진 ‘최소대립’ 자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의 ‘최소대립’은 원래 언어학 용어 ‘minimal pair’에 대한 한국어 번역의 하나이다(이진호 2017:501). 그런데, 이와 같은 ‘minimal pair’는 Trask (1996:224)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두 어휘이나, 오직 한 부분에서만 다른 분절음을 나타내며, 나머지 부분에서의 분절음은 같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립의 존재는, 서로 다른 두 분절음이 다른 음소에 속함을 최종적으로 증명한다.⁶⁾

그리고 이어서 제시된 영어의 자음 [f]와 [v]의 ‘minimal pair’ 예시는 다음과 같다.

fat[fæt]과 vat[væt], rifle[ˈraɪfl]과 rival[ˈraɪv], leaf[li:f]와 leave[li:v]

이상의 ‘minimal pair’에 대한 언어학의 기본적인 정의를 감안할 시, 만의 하나 정말로 고대한국어에서 [±voice]의 ‘최소대립’을 제시한다면, 상기하였던 ‘臺 ㄷᆞᆫ-新台巳, 仇台 vs 臺 ㄷᆞᆫ-臺久用善’식 보단, ‘臺久用善 ㄷᆞᆫ.ᆫᆞᆫᆞᆫ.ᆫᆞᆫ vs 臺久用善 ㄷᆞᆫ.ᆫᆞᆫᆞᆫ.ᆫᆞᆫ’식의 대립 예시를 제시해야 비로소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혹은 이와 같은 대립 예시를 찾기 어려울 시에는 ‘근사최소대립(near minimal pair)’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臺救用善 ㄷᆞᆫ.ᆫᆞᆫᆞᆫ.ᆫᆞᆫ vs 臺久用善 ㄷᆞᆫ.ᆫᆞᆫᆞᆫ.ᆫᆞᆫ’와 같은 정도의 대립 예시를 제시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

다소 설명이 두서없이 길어졌다고 여겨질 수도 있으나, 이러한 면에 근거해 감안할 시, 111쪽에 제시된 고대한국어 수사의 유성파열음 *d·g 존재여부, 더 구체적으로 논한다면 고대한국어에 [±voice]의 자질 차이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연구 방식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로 여겨진다.

6) Two words of distinct meaning which exhibit different segments at one point but identical segments at all other points. The existence of such a pair demonstrates conclusively that the two segments which are different must belong to different phonemes.

4.

이하에서는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를 읽으면서, 필자가 나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여겨진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페이지를 제시하고 논의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하의 네 부분은 필자가 대체로 동의 혹은 일부 동의를 하고, 조언을 더할 수 있다고 판단된 내용에 대한 논의이다.

236쪽에서는 國立慶州博物館 미술관 터 1호 목간의 ‘哉’에 대해 거론하면서, 향찰에서는 이 ‘哉’가 ‘齊’나 ‘制’로 바뀌어 표기됨을 남풍현(1991)에 근거하여 논하였다. ‘哉’ ɿtsaj, ‘齊’ ɿdzej dzej⁷, ‘制’ tejej⁸의 대응에 대해서는 필자도 이른 시기부터 주시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응은 ‘齊’ *dzi^a > ɿdzej, ‘制’ *tets^b > tejej⁸의 과정 속에서 상고중국어의 단모음(monophthong) *-i과 *-e이 각각 중고음에서 介音을 제외하면 이중모음(diphthong) -ej와 -ej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당시의 한반도 거주민들에겐 ‘哉’ *tsi^a > ɿtsaj의 음운변화를 거친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음운 변화 과정의 韻母음가가 유사하게 여겨졌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도 같이 감안해야 할 것이다.⁷⁾

267쪽에서는 ‘益丁’이란 咸安 木簡에 등장한 어휘를 논하면서, 15세기 중세한국어의 ‘더덕(蓼)’에 대응된다고 가정하고는 ‘구멍(穴)’의 방언형인 ‘구멍, 구덕’ 등을 참고로 제시하여 ‘益丁’에 대응된 고대한국어 어휘를 *더딩~더딩으로 재구하였다. 필자의 관점에서 논한다면, 함안 목간이 561년 하한에 만들어졌음까지 감안할 시, 중고음에서 ‘端母靑韻平聲’이었던 ‘丁’의 전기중고음은 실제로도 *teŋ 쪽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있다.⁸⁾ 그러한 환경을 생각한다면, ‘益丁’이 정말로 ‘더덕’과 대응하는

7) 단, 이러한 논의대로라면, 鄉歌의 표기방식이 목간보다 오래된 음운체계를 반영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8) 이 면에서 비교적 합당한 재구는 Pulleyblank(1984) 전기 중고음(Early Middle

어휘였다고 볼 시, ‘*더덩’보다는 ‘*더덩’이 훨씬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327쪽에서는 같은 ‘益丁’의 ‘丁’에 대하여 외적 재구를 /*tjɛŋ/로 제시하고, 내적 재구를 /*tɛŋ/로 논하였으되, 시대상 ‘丁’에 /*tjɛŋ/과 같은 음가를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283쪽의 “‘*-리’를 표기할 때에, 백제에서는 ‘리’를 주로 사용했지만 신라에서는 주로 ‘利’를 사용했다는 것도 표기법의 차이에 포함된다.”는 중국어역사음운론적으로 의미를 지닐 수도 있는 대응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리’는 ʎuɿ (來母止韻上聲)이고, ‘利’는 ljiʔ (來母至韻去聲)인 글자로서, 초기 중고음에서 엄밀하게는 운모와 성조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한국어의 ‘*-리’라는 음절을 나타내기 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백제에서는 ‘리’는 ʎuɿ를 사용하고, 신라에서는 ‘利’는 ljiʔ를 사용하였다면, 백제가 받아들인 한자음에서는 중고음의 之韻 -uɿ과 脂韻 -ji 계통을 구분하지 않은 특징을 지녔을 수 있다.

320~321쪽에서는 ‘器’의 음가에 에 대하여 서술한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牙音 ‘ㄱ’과 喉音 ‘ㅇ’의 뒤에서는 ‘ㅣ’뿐만 아니라 ‘니’로도 반영된다. 중세 한자음에서 ‘기’로 표음된 한자는 52개이고 ‘기’로 표음된 것은 18개이므로 ‘ㄱ, ㅎ’ 등의 [-anterior, -coronal] 자음 뒤에서는 ‘니’를 택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듯하다. 이것을 중시하여 ‘器’를 ‘기’로 재구할 수도 있다. 곡물 ‘기장’은 箕子가 東來할 때 가져온 것이어서 ‘기장’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설화가 전하는데, 箕子の ‘箕’도 중세 한자음으로 ‘기’이다. 따라서 외적 재구를 중시하면 ‘器’를 ‘*기’ 즉 /*kɔi/로 재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에서 重紐라는 개념을 이해

Chinese)의 靑韻 -ejŋ이 되겠다. 여기서의 운미 -jŋ는 Pulleyblank(1984:xvi)에 제시되었듯, 운미가 지니고 있는 구개음(palatals) 자질의 표기이다.

하였다면, 이와 같은 복잡한 서술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韻鏡』과 같은 韻圖 자료만 보아도, 器 *kʰrits > kʰuiʔ는 棄 *kʰits > kʰjiʔ와 三等과 四等 차이를 보이고 있음만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무엇보다, 伊藤智ゆき(2002:165)를 보면, 중세한국한자음에서도 ‘器’는 ‘기’로 나타났으며, 邵榮芬(1982:72)에서도 관련된 한국한자음의 重紐 대표예시로 ‘棄(기)와 ‘器(기)를 제시한 바가 있다. 중국어 역사음운론의 관련 연구 성과를 좀 더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의 부분에서는 그다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내용 및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103쪽에서는 남풍현(2003)에서 제시된 울진봉평비의 ‘牟羅’와 이승재(2009:171)에서 논해진 나주 북암리 목간 제3호의 ‘毛羅’에 대하여, “신라의 ‘牟羅’와 백제의 ‘毛羅’는 음운론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신라어와 백제어의 차이는 방언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 논하였다.

남풍현(2003:166~167)을 보면, 『梁書·新羅傳』의 “其俗呼城曰健牟羅”의 ‘健牟羅’가 ‘큰+mura’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대단히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특히나, 남북조시대의 불경 음역에서도 ‘牟’ *mu^b > ɿmu^{ijw}는 鳩摩羅什역의 『金剛經』에서 산스크리트어 Śākyamuni의 음역으로 채택한 ‘釋迦牟尼’의 대응을 보더라도, ‘牟’는 *mu와 같은 음절에 대응됨이 분명해 보인다.⁹⁾ 반면, ‘毛羅’의 경우는 ‘毛’ *mow > ɿmaw 자체가

9) 권인한(2015:85)에는 고구려의 초대 왕 이름의 異文인 ‘鄒牟 *tsru^b.mu^b~ɿtsuiw.ɿmu^{ijw} > 朱蒙 *to^b.mon^a~ɿtcuqu.ɿmun’의 음운변화에 대한 필자의 입장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논한다면, 다음과 같다. ‘鄒’ *tsru^b > ɿtsuiw나 ‘牟’ *mu^b > ɿmu^{ijw}와 같은 조기의 표기는 후대에 각각 ‘朱’ *to^b > ɿtcuqu와 ‘蒙’ *mon^a > ɿmun로 바뀌게 되었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면, 원래 ‘鄒牟~朱蒙’에 해당되는 고구려어 초대 왕 이름인 2음절의 주요모음은 모두 각각 *u이었을 것이되, 초기에는 주요모음을 *-u (즉 상고중국어의 幽部 계통)로 지니고 있었던 ‘鄒’와 ‘牟’가 점차 중고음으로 변화해 가면서 -uiw와 같은 다중모음을 지닌 음절로 변화한 결과, 그것을 대체하기 위하여 나타난 표기가 초기에는 주요모음을 *-o (즉 상고중국

상대일본의 萬葉假名 이래 *mo라는 음절에 대응되어왔음을 참고로 할 시, 이때의 ‘毛羅’는 신라 계통의 ‘牟羅’ *mura와는 달리 *mora가 음가 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면 어떠하였을까로 여겨진다.

135쪽의 한국한자음에서의 ‘助’ 독음에 대하여 ‘助’는 중고음에서 dzɯp² (崇母語韻去聲)이다. 한국한자음에서 나타난 중고음 魚韻 -ɯp의 대응에 대해서는 필자(2015c)조차도 성모가 莊組 외인 경우의 한국한자음의 대응에 대해서는 논문을 쓴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具述하지 않는다. 그러나 135쪽의 “‘助’의 전통적 한자음이 ‘저’가 아니라 ‘조’이므로”란 논의는 분명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助’와 같은 魚韻의 莊組가 중세한국한자음 이래 주요모음을 ‘ㄱ’로 한 이유에 대해서 有坂秀世(1944:298)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魚韻은 한국한자음에서 일반적으로 ㅋ ㆁ韻이되, 齒音二等에서만 ㄱ은 ㄴ韻이 되어 模韻과 같은 同形이 되어 있다.(한글에서의 ㆁ는 현대의 음가로는 [ɔ] 또는 [ə]인데, 옛 음가는 아마도 [ə]에 근접했을 것이다) 이같이 語韻의 齒音二等이 模韻으로 흡수된 이유는, 『洪武正韻』과 공통된 특색이다. 『中原音韻』에서도 齒音二等の韻字는 같은韻 내에서 다른 글자와 구별되어 있다. 이 같은 특색은 당대 이전의 자료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바이다.¹⁰⁾

어의 侯部 *o 및 東部 *-oŋ)으로 하였다가 중고음으로 변화해가면서 주요모음이 -u나 -uŋ으로 변화한 ‘朱’와 ‘蒙’으로 대응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10) 魚韻は、朝鮮音では、一般にはyö ö韻であるけれども、齒音二等だけがo韻で即ち模韻と同形になつてゐる。(öは諺文ㅛ、現代の音は [ɔ] 又は [ə] であるけれど、古音は恐らく [ə] の方に近かつたであらう。) かくの如く魚韻の齒音二等が模韻に転入してゐることは、洪武正韻と共通な特色である。中原音韻でも、齒音二等の韻字は、同韻中の他の字の場合とは区別されてゐる。かやうな特色は、唐代以前の材料には未だ見当たらない所である。

이는 이후의 대표적인 한국한자음 연구성과인 河野六郎(1968:190) 및 伊藤智ゆき(2002:130)에서도 모두 수긍된 바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29쪽에 의거할 시, 작성시기가 752년 혹은 765년으로 추정되는 ‘경주 월지’ 목간의 ‘助’는 비교적 앞선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음가가 기타 성모를 지닌 魚韻 글자들의 한자음의 운모 ‘ㄱ ㅋ’와 대응되는 ‘저’ 정도로 추정됨은 무리가 아닐 수 있다.¹¹⁾

144쪽에서는 “‘別’의 한어 중고음이 [幫中B入仙]이므로 고구려어에서는 ‘別’이 /*pjet/ 정도의 음가였을 것이다”라고 논하고, 같은 페이지의 각주 30번에서는 “이 음가 추정에 대해서는 이승재(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라 서술하였다.

이에 따라 이승재(2016:583)를 보면, “仙韻은 항상 3등 A, AB, B이므로 개음 /*j/를 가진다. 이에 따라 仙韻의 음가를 /*jen, *jet/으로 재구할 수 있다”라고만 서술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기에선 간과된 바가 있다. ‘別’은 三等 중에서도 重紐三等으로서, 학자에 따라서 그 차이가 介音(glide)에 있느냐, 혹은 聲母에 있느냐로 논의가 분분한 重紐 문제에 걸려있다. 이를 감안할 시, 別의 중고음은 puɛt, buɛt,와 같은 음가가 된다. 중세한국한자음 이래에는 ‘別’의 독음이 ‘별’로 적혀왔으나, 介音이 전설모음/j/이 아닌 후설모음/ɯ/인 상황이라면, 비교적 이른 시기의 한국한자음에는 반영이 아니 되었을 가능성을 같이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럴 시에는 외려 이승재(2016:144)에서 제시한 신라어 어휘 ‘*뵐’과 더 규칙적인 대응도 되지 않을까라 여겨진다.¹²⁾

319쪽에서는 ‘疊’ dep₅ (定母帖韻入聲)의 대응에 대하여 해당되는 재구음을 ‘*뵐’으로 설정하고, 중세 이래의 독음인 ‘뵐 > 첩’에 대해서는

11) 분절음소로는 같은 음가를 지녔으면서 성조만 다른 ɛdzɯr ‘鋤’의 한국한자음이 ‘서’이기도 한 경우도 있음도 감안할 수 있다.

12) 이에 대해서는 韓旻濂(2009:98~101)에 제시된 *-ruɯ[Cor] > -ruɯ[Cor] > /-ruɯ[Cor]/[-ruɯ[Cor]식의 음운변화 규칙을 같이 참고하기 바람.

“후대의 한어에서 濁音清化가 일어나 한국 중세 한자음에서는 ‘*뎃’이 ‘텃’으로 반영된다.”라 서술하였다. 이 점에서도 두 가지는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당시 四等韻의 주요모음이 과연 -ie-와 같은 이중모음이었는가이다. ‘疊’ 또한 역시 四等韻인 帖韻 -ep, 소속으로서, 이러한 문제와 연관된다. 陸志韋(1947)에서 四等の 주요모음을 -e-와 같은 단모음으로 인정한 이래, 李榮(1956) 및 邵榮芬(1982), 鄭張尙芳(1987)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은 중고음의 四等の 주요모음이 -e-와 같은 단모음이었을 수도 있다는 논의도 하였다(가령 王靜如 1948에서 제시된 四等韻 주요모음의 음운변화 $\varepsilon > ee > ie$). 이 점도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뎃’과 같이 재구해야 할지는 고려해야 할 바가 좀 더 있게 된다.

또한, 중고음의 유성저지음 성모가 한국한자음에서 무성유기저지음인 초성으로 대응되는 것은 단순 ‘濁音清化’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성음화가 진행된 뒤,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유기음화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가령 許寶華 等(1999:6734)에 제시된 여러 방언의 ‘疊’字 독음을 보면, 성모가 무성음화 되었음에도 북방방언은 [tie³⁵], 湘方言(湖南 衡陽)은 [tie¹¹] 같은 무성무기파열음이 되, 閩方言(福建 大田 前路)에서는 [t'a⁴³] 과 같은 무성유기파열음으로 대응되는 등의 문제가 걸리게 되므로, 이를 단순히 ‘濁音清化’로만 칭하는 것은 再考해야 할 것이다.

319~320쪽에서는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 나오는 단위명사 ‘發’ puɣet, (幫母月韻入聲)에 대해 논하면서, “元韻 입성의 음가는 /*-wet/으로 추정되므로 ‘發’을 ‘*발’로 재구해야 할지, ‘*벌’로 재구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라 서술되어 있다. 이는 이승재(2016:583)에서 고구려어에 반영된 元韻 습口的 주요모음을 /*o/로 가정할 수 없다는 논의를 하기 위해 재구된 음가로 여겨진다. 이에, 해당 구절을 직접 인용하면 이하와 같다.

현대 북경어에서 元韻 3등의 운복은 [o]가 아니다. 또한 한국 중세음에서도 *곤/꼴, *논/놀, *돈/돋, *룬/롤, *문/몰, *븐/블, *순/솔, *운/울, *존/졸, *존/졸, *툄/톨, *푼/플, *푼/플, *훈/홀' 등의 음절이 없는데, 이는 우연한 공백이 아니라, 체계적인 공백이다.

일단 현대북경어는 현대중국어로서, 그것을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바가 있다. 당장 ‘發’만 봐도, 許寶華等(1999:1543)에서는 吳方言(浙江 金華 岩下)의 ‘發’의 독음 [fo⁴⁴]가 뚜렷하게 존재하며, 중고음에서 유무기성의 차이를 제외하고 ‘發’과 대응되는 陽聲韻 음절인 ‘𪛗’ ɸ^huəŋ(許寶華等 1999:7407)을 보면, 같은 吳方言(浙江 金華 岩下)에서는 [fo²⁴]로 대응되며, 또 다른 방언인 客家方言(廣東 梅縣)에서는 [p^ʰən]마저 나타나, 반증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필자도 한국한자음을 논함에 있어 韓昶濤(2015c)와 같이 방언을 인용한 적은 있으나, 단순히 한 두 방언의 음가를 논한 것이 아니라, 방언의 層次 등을 같이 감안하여 논의하였다. 고로 이런 경우, 북경방언만을 논하는 것은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 내 의견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방식 상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은가로 여겨진다.

또한 중세한국한자음은 河野六郎(1968:203)과 伊藤智^㉜키(2002:308)에서 논하여졌듯, 다소 연대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체로 당대의 長安 발음이 유래가 된다고 여겨진다. 319~320쪽 및 이승재(2016:583)에서 논하여진 자료는 모두 그보다 다소 앞서있는 시기의 문헌들인데, 그 시기의 한자음 대응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중세한국한자음’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는 것 자체에 再考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322쪽에서는 南豐鉉(1981:213)에 의거, 『鄉藥救急方』 및 목간에 나타난 ‘召’ dzjew²(중세한국한자음 ‘:쇼’)의 독음을 *조로 재구하였다. 禪母(이승재 2017에서는 常母로 칭하여짐) dz-가 파찰음이었음은 陸志韋(1947:11)로부터 시작하여 邵榮芬(1982:101~108) 등에서 대단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필자도 韓昶濤(2009, 2014b)에서 모두 긍정하였기 때문에 聲母 한정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ㅈ’의 聲母는 기본적으로 치경경구개음(alveolo-palatal)이다. 일반적으로 중세한국어 이전의 한국어 파찰음 ‘ㅈ·ㅊ’ 등은 그 음가가 치경음인 *ts-·*tsʰ- 쪽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ㅈ’ dzjew²에 있어 개음 -j-가 반영되지 않은 ‘*조’란 음가가 정말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音韻學의 입장 하에서는 바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ㅈ음 절을 적기 위해서라면 성모가 精組 ts- tsʰ- dz-인 效攝 一等(즉 豪·皓·号韻) -aw이나 성모가 莊組 ts- tsʰ- dz-인 效攝 二等(즉 肴·巧·效韻) -aw의 글자들이 사용되어도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322쪽의 같은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이 주어진 각주 9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되어 있다.

聲符가 ‘ㅈ’와 ‘ㅊ’인 한자를, ‘아래아 한글’의 현대 표음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두 표음 중에서 ‘조’와 ‘진’이 ‘소’와 ‘신’보다 일찍 들어온 한자음이 아닐까 한다.

1. 소: 紹 沼 邵 炤 邵 邵 昭 昭 昭 昭 筲
 조: 詔 蛸 駟 昭 筲
2. 신: 娠 晨 蜃 宸 娠 銀 麤 賑
 진: 震 賑 振 娠 賑 賑 賑 賑

사실 여기에는 중세한국한자음의 실제 반영을 검토해야 할 것은 물론이요, 類推音 등의 여러 가지 難題가 걸려있을 것이되, 시간관계상 간단히 독자는 물론이요,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 이후의 참고를 위해 해당 글자들의 중고음을 제시하면 이하와 같다.

紹	沼	邵	炤	邵	邵	招	昭 ¹³⁾	昭	昭	昭	昭 ¹⁴⁾
ᶜdzjew	ᶜtejew	dzjew	ᶜtejew	ᶜdzjew	dzjew	ᶜdzjew	ᶜdzjew	ᶜdzjew	ᶜdzjew	ᶜtejew	X
詔	蛸	駟 ⁵⁾	昭 ¹⁶⁾	筮							
ᶜtejew	ᶜtew	ᶜtejew	tejew	X							
娠	晨	蜃	宸	裨	銀	麤	脈				
ᶜejin	ᶜdzjin	ᶜdzjin	ᶜdzjin	ᶜdzjin	ᶜdzjin	ᶜdzjin	ᶜdzjin				
震	賑	振	俛	蜃	裨	誨	脈	脈			
tejin	ᶜtejin, tejin	ᶜtejin	ᶜtejin, tejin	ᶜdzjin, dzjin	ᶜtejin	tejin	ᶜtji, ᶜtjin	njin			

이러한 대응을 보면, 초성이 ‘ㅅ’으로 대응되는 경우는 상당수가 禪母 dz-이되, ‘ㅈ’으로 대응되는 경우는 상당수가 章母 tc-이며, 나머지의 경우(蛸, 賑, 脈 등)는 聲符에 근거한 유추음으로 여겨진다. 이같이, 한자음에 대해 판단할 때 단순히 한국한자음에만 근거해 결론을 내림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325쪽에서는 “음절말 자음 ‘-ㅅ’과 ‘-ㄱ’을 표기하는 ‘叱’과 ‘只’를 漢字音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叱’이 ‘-ㅅ’에 대응되는 점에 있어서는 근년에 그 유래를 불경의 음역으로 여긴 魏國峰(2014)과 같은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熟考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반면, ‘只’가 ‘-ㄱ’을 표기하는 데에 사용된 요인에 대해서는 필자의 韓昶濤(2010a)에서 논하여졌듯, 六朝시대 당시 한반도와 교류가 많았던 南朝의 佛經音譯에 있어서도 ‘支’·‘只’의 두 글자가 산스크리트어의 ‘ke’에 대응되는 경향을 나타냈음을 감안할 시, 한반도 삼국시대 당시의 중국어 현지 독음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같이 감안

13) 『廣韻』에는 없음. 『集韻·宵韻』에 제시된 ‘昭’의 반절 ‘時饒切’에 근거.

14) 『廣韻』 및 『集韻』에도 없는 글자. 현대중국어로는 tiao2로 읽히는데, 이 글자가 훈글에서 ‘소’나 ‘조’로 입력되는 것은 유추로 판단됨.

15) 『廣韻』에는 없음. 『集韻·宵韻』에 제시된 ‘駟’의 반절 ‘之遙切’에 근거.

16) 일반적으로 이때는 ‘昭’가 ‘照 tejew’의 通假.

해야 할 것이다.

336쪽을 보면, “(16)의 ‘ㅍ’ 또는 ‘ㅑ’는 ‘部’의 ‘ㅍ’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고대 일본에서의 독법 /*be/와 ‘部’의 한어 중고음 [並中1上侯]를 참고하여 ‘*부’로 읽을 수 있다.”라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서술된 “고대 일본”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여 궁남지’라는 해당 목간의 연도인 ‘7세기 2/4분기’까지 감안할 시, 上代日本語(대체로 일본의奈良時代) 시기로 여겨지며, 해당 용례는 당시의 일본어 표기인 萬葉假名로 여겨진다. 이때의 ‘部’의 독음인 ‘へ・べ’에 대해 大野晉 篇(2011:1067)는 ‘訓讀’으로 판단하였으며, 그중에서 상기된 336쪽에서 ‘/*be/’로 제시된 음절에 해당되는 ‘べ’는, 大野晉 篇(2011:1067)의 ‘へ(辺)’ 항목에 제시되었다시피, “복합어에서는 ‘べ’로濁音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옛날에는 복합어에서도 ‘へ’과 같이 청음인 경우가 많다¹⁷⁾”라 논의되어 있다. 고로 여기에서 굳이 ‘고대 일본에서의 독법’을 제시한다면, 上代日本語에서 나타난 ‘部’의 진정한 음독인 /*bu/(大野晉 1953/1972:280)를 제시함이 낫다고 판단된다.

347쪽의 각주 5번에서는 단위명사(중어학에서의 소위 ‘量詞’)인 ‘흡’의 의미로 사용된 ‘습’에 대해 논하면서, “이 도량형의 ‘습’을 현대어에서 독특하게도 ‘흡’으로 읽는다. ‘습’의 한어 중고음은 [匣中1入覃]이므로 고대에는 아마도 ‘*합’에 가까운 음가였을 것이다.”라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再考해야 할 것이다. 우선, ‘습’은 『廣韻·合韻』에 反切이 복수로서, ‘侯閣切’(flap)와 ‘古沓切’(kflap)이다. 이 중, ‘古沓切’(kflap)에 대해서 『廣韻·合韻』에서는 단지 “습, 集. 又音, 迨”이라고만 제시되어 있되, 사실상 같은 독음에 해당하는 『集韻·合韻』의 ‘葛合切’(kflap) 小韻의 ‘습’에는 ‘兩龠爲습’(2 龠이 1습이 된다)이라 의미가 제시되어, 수량단위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늘날 일반

17) 複合語では「べ」と濁音になることもあるが、古くには複合語でも「へ」と清音のものが多。

적으로 ‘10脣=1습’으로 정의되는 量詞일 때에도 결국은 중고음의 $k\lambda p_3$ 을 계승하여 $ge3$ 로 읽히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습’의 반절로 제시한 ‘[匣中1入覃]’은 『廣韻·습韻』의 ‘侯閣切’($h\lambda p_3$)에만 해당이며, 마땅히 ‘葛合切’($k\lambda p_3$)에 해당하는 ‘[見中1入覃]’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습’은 복수의 反切들이 모두 습韻 $-ap_3$ 소속으로서, 같은 咸攝一等的 韻이라 하여도 초기 중고중국어에서는 盍韻 $-ap$ 과 주요모음에 차이를 보였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量詞의 의미를 지닌 ‘습’의 독음이 ‘흡’임은, 늦어도 초기 중고중국어 이전의 중국어 어휘를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지닌다.

350쪽에서는 일본 목간 중에서 발견된 ‘ㄹ’을 ‘了’로 파악해서는 안 되고, ‘良’에서 비롯된 한국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논¹⁸⁾하면서, 6번의 각 주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는 다른 해석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 글자를 ‘了’로 판독하되 ‘了’(ryo)가 동일한 음가를 지니는 ‘良’($ryō$)를 대체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了’와 ‘良’은 음운론적으로 $/*-ŋ$ 의 유무에서 또는 音長에서 차이가 나므로 이 견해를 택하지 않는다.

라 서술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와 통시적인 문제가 모두 엮이게 된다. 우선, 공식적으로 ‘了’ $l̥jɛw$ 와 ‘良’ $l̥uɑŋ$ 의 현대일

18) 일본의 목간 자형에 대한 부분은 필자의 전공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단, 350쪽에서 인용하였던 木簡學會編(1990/1994:22, 117~118)을 보았을 때 역시나 좀 더 구체적으로 관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진다. 350쪽에서 일본 목간의 ‘ㄹ’이라고 제시한 실제 자형을 보니, ‘ㄹ’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마침 바로 다음에 제시된 木簡學會編(1990/1994:22)의 ‘127’번 목간에는 ‘了’와 ‘良’이 같이 출현해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了’($了$), ‘良’($良$) (이상 良). 여기에 나타난 ‘良’에 해당되는 글자는 다소 희미하되, ‘了’에 해당되는 글자와 자형차이를 상당히 보이고 있다.

본한자음은 둘 다 ‘リョウ’[rjo:]이므로 音長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통시적으로 보면, ‘了’의 漢音은 원래 중고음의 ʳljew란 음절에 대한 대응으로 2음절인 ‘レウ’였으며, ‘良’의 漢音은 중고음의 ʳluŋ란 음절에 대한 대응으로 사실상 2음절인 ‘リヤウ’였다가, 근세 일본어를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특수모라 중의 하나인 長音을 지닌 [rjo:]가 된 것이다.

355쪽에서는 Whitman (2011:112)에서 다루지 않은 표음자로 일컬어진 ‘止’를 거론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한자 ‘止’에서 비롯된 ‘と’가 어찌하여 /*to/를 표음하는가 하는 문제는 일본의 언어자료만으론 설명할 수 없다(犬飼隆 2005:83~84). 그런데 한국의 구결자 ‘ㄷ’가 ‘止’에서 온 구결자이고 /*tja/를 표음한다는(李丞宰 1993) 점을 참고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後略)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상대일본어의 음운체계부터 파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대일본어의 모음이 몇 개였는지에 대해서는 異論이 상당히 많은 편이나, 현대 일본어의 다섯 모음 중 /e, i, o/는 상대일본어에서 甲과 乙의 두 종류로 나뉜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긍정되고 있다. 그 점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상대일본어의 자료인 上代特殊假名遣이다. 이러한 상대일본어의 上代特殊假名遣에서 ‘止’와 같은 중고음 之韻 소속의 글자들이 나타내는 일본어 모음은 大野晉(1953/1972:186)에서 설명되어 있듯, ㄷ乙類(森博達 1991의 재구음은 /ə/)가 된다. 이를 감안한다면, 假名 ‘と’의 유래가 되는 ‘止’는 상대일본어의 ‘と’乙이 되며, 森博達(1991)에 의거할 시, 그 음가는 *tə이다. 이것은 단순히 중국어 ‘止’ *tʰi²ᵇ > ʳtɕui²ᵇ의 성모가 구개음화되기 전의 음가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 가능하기 때문에, 원인을 반드시 구결자인 ‘ㄷ’로부터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364~365쪽에서는 중고음 성모의 幫組 p- pʰ- b- m- 와 非組 f- fʰ- v-

mj-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

고대 한국어에서는 脣重音과 脣輕音의 구별이 없으므로 ‘法’의 非母 [*f]는 幫母 /*p/에 편입되고, ‘伐’의 奉母 [*v]는 並母 /*b/에 편입된다. (이승재 2013다, 2016)

여기에 제시된 ‘이승재(2013다, 2016)’은 바로 각각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가 출판되기 전 출판되었던 『漢字音으로 본 백제어 자음 체계』 및 『漢字音으로 본 고구려어 음운체계』이다. 이에 대해서 관련 연구사에 대한 복잡한 설명을 생략하고, 楊劍橋(1997/2013:116)에 제시된 중국어 重脣音의 輕脣音으로의 변천과정 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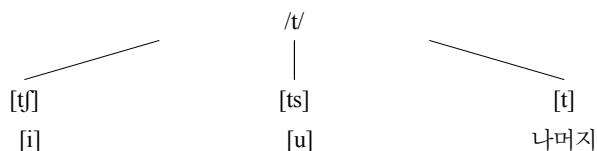
6세기 말 『切韻』시대	7세기 중엽	8세기 말부터 12세기까지	13세기로부터 16세기까지	17세기부터 현대까지
幫 p-----→	非 pf-----→	f-----→	f-----→	f
滂 p ^h -----→	敷 pf ^h ↗	↗		
並 b-----→	奉 bv-----→	v		
明 m -----→	微 mj-----→	m-----→	v-----→	u

단순히 『三國史記』에만 근거하더라도, 고구려는 BC.17~AD.668, 백제는 BC.18~AD.660에 존재한 나라로서, 대부분의 역사는 601년에 편찬된 『切韻』보다 앞선 시기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364쪽에 제시된 ‘法’자의 예시를 보면, 567년에 건립된 扶餘 陵山里寺址의 木簡, 610년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羅州 伏岩里的 木簡, 7세기 2/4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扶餘 宮南池의 木簡, 752년 혹은 76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慶州 月池의 木簡으로서, 경주 월지의 목간을 제외할 시에는 모두 7세기 중엽 보다 다소 앞선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고대 한국어에서는 脣重音과 脣輕音의 구별이 없으므로”라고 논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385쪽에는 “漢語 中古音의 舌內 입성운미 /*-t/가 일본한자음에서는 /*-ts(u)/나 /*-ts(i)/로... 반영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라 서술되어 있으며,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일본 한자음에서는 개음절인 일본어 음절 구조의 특성에 맞게 입성운미 /*-t/의 뒤에 /*u/ 또는 /*i/가 먼저 첨가된 다음, 이어서 이 /*-tu/나 /*-ti/가 각각 /*-tsu/나 /*-tsi/로 바뀌게 된다”라 서술되어 있다.

역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窪蘭晴夫(1999:78)에서 제시된 일본어 자음 /t/의 변이음에 대한 도표형식의 설명이 좀 더 간략할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tʃ]로 적힌 /t/의 변이음은 좀 더 정칙으로 적을 시, 치경경구개 파찰음인 [tʃ]이 될 것이며, 이같이 /t/의 변이음으로 [tʃ]와 [ts]가 등장한 시기는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시대로 여겨지기에, 대표적인 일본한자음 吳音과 漢音이 수립된 시기와 비교할 시, 다소 후기의 일일 것이다. 비슷한 문제는 401쪽에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399쪽을 보면, “60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陸法言 등이 최초의 韻書인 『切韻』을 편찬했다”라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陸法言이 작성하였던 『切韻』의 序만 보아도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운서들 서명이 제시된다.

呂靜『韻集』、夏侯詠『韻略』、陽休之『韻略』、李季節『音譜』、杜臺卿『韻略』等, 各有乖互。

呂靜(晉代. 생물년 미상)의 『韻集』, 夏侯詠(梁代. 생물년 미상)의 『韻略』, 陽休之(509~582)의 『韻略』, 李季節(본명 李概. 北齊. 생물년 미상)의 『音譜』, 杜臺卿(北齊~隋代. 생물년 미상)의 『韻略』 등은 각각 착오와 모순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공식적으로 최초의 韻書는 『切韻』의 序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曹魏의 李登(생물년 미상)이 저작한 『聲類』로 일컬어지나, 『切韻』이란 운서의 서문에도 이미 다종의 이전 운서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통해 『切韻』이 적어도 최초의 운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5.

필자가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를 서평하는 데에 요청된 기한은 한 달여 즈음이었다. 이미 앞서서 논하였듯, 한국어학이 주된 전공이 아닌 필자가 짧은 기간 동안에 본문만으로도 450여 페이지에 이르는 한국어학 관련서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함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다행이었던 것은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의 상당부분이 木簡의 한자표기를 통해 서사된 고대한국어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그 내용은 중국어 역사음운론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논할 수가 있었다.

제리 노먼(Jerry Norman, 1988)에서 域外方言(Sino-Xenic Dialect)의 하나로 칭해졌던 한국한자음(Sino-Korean), 특히나 고대한국한자음은 韓昶濤(2005) 「고대 한국어 借字 표기 ‘尸’ 음가의 고찰」에서 확인 가능하듯, 필자가 연구경력을 시작하면서부터 의지를 지녔던 분야이다. 이러한

연고로, 2008년 제2학기부터 석사 학위논문을 쓰려고 하였을 때, 지도교수인 全廣鎭 교수에게 학위논문 주제로 고대한국한자음을 제안하였더니, 거절당하였다. 기초를 다지는 학위과정에 있어 중문과의 本領을 중시해야지, 비교나 대조는 기초를 다짐에 해를 끼치게 한다는 사실 너무나 타당한 이유에서였다.

결국 그 권고를 따라 학위논문 주제로서는 절대로 한국어와의 비교 혹은 대조를 선택하지 않았던 필자는 대신 학위과정 속에서도 나름대로는 한국어학자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연구방향이 석사 시절에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현재에 있어서도 부족하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게 구성하였던 관계는 나름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까지도 한국어와 중국어 및 일본어와의 비교 혹은 대조 방향으로 논문을 쓸 수 있었다. 이 면을 이후 연구에 대한 조언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필자가 학위논문 주제로 잡고 싶었던 고대한국한자음을 연구 주제로 잡아 근년에 연속으로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을 포함한 관련 서적을 출간하게 된 이승재 교수의 업적에는 재삼 경의를 표하면서, 본고를 줄이려 한다.

참고문헌

- 權仁瀚(2015), 『廣開土大王碑文 新研究』, 서울: 박문사.
- 김무림(2015), 『고대국어 한자음』, 서울: 한국문화사.
- 南豊鉉(2014), 『古代韓國語 論攷』, 서울: 태학사.
- _____(2003), 「居伐牟羅와 耽牟羅」, 『耽羅文化』 23집.
- _____(1991), 「신라시대 이두의 ‘哉’에 대하여」,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金完鎭先生 華甲紀念論叢), 서울: 민음사.
- _____(1981), 『借字表記法研究』, 서울:檀國大學校出版部.
- 大野晉(1953/1972), 『上代仮名遣の研究 日本書紀の仮名を中心として』, 東京: 岩波書店.
- 大野晉 篇(2011), 『古典基礎語辭典』, 東京: 岩波文庫.
- 木簡學會編(1990/1994), 『日本古代木簡選』, 東京: 岩波書店.
- 森博達(1991), 『古代の音韻と日本書紀の成立』, 東京: 大修館書店.
- 邵榮芬(1982), 『切韻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楊劍橋(1997/2013), 『漢語現代音韻學』(修訂本),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 엄익상(2015), 『(백제에서 현대까지)한국한자음 중국식으로 다시보기』, 서울: 한국문화사.
- 余迺永(2011), 『新校互注宋本廣韻定稿本』,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窪藪晴夫(1999), 『日本語の音声』<現代言語学入門 2>, 東京: 岩波書店.
- 王力主編(2000), 『王力古漢語字典』, 北京: 中華書局.
- 王靜如(1948), 論古韓語之顎介音, 燕京學報, 第35期.
- 魏國峰(2014), 『고대 한국어 음운 체계 연구: 전승 한자음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有坂秀世(1944), 「漢字の朝鮮音について」, 『国語音韻史の研究』, 明世堂書店, 295-318.
- 陸志韋(1947), 『古音說略』, 北京: 哈佛燕京學社出版.
- 伊藤智ゆき(2002), 『朝鮮漢字音研究』, 東京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이승재(2016), 『漢字音으로 본 고구려어 음운체계』, 서울: 일조각.
- _____(2013), 『漢字音으로 본 백제어 자음체계』, 서울: 태학사.

- 이승재(2009), 「木簡과 國語學」, 『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국립문화재연구소 40주년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논문집),
 창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
- 李零(2008), 『簡帛古書與學術源流』(修訂本),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 李榮(1956), 『切韻音系』, 北京: 科學出版社.
- 이진호(2017), 『국어 음운론 용어 사전』, 서울: 역락.
- 정광(2011), 『삼국시대 한반도의 언어연구-고구려어의 역사비교언어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박문사.
- (宋)丁度等 編(1985), 『集韻(附索引)』,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鄭張尙芳(1987), 「上古韻母系統和四等、介音、聲調的發源問題」, 『溫州師範學院學報』, 1987 (4).
- 平山久雄(1967), 「中古漢語の音韻」, 『言語』大修館書店<中国文化叢書 I>,
 東京: 大修館書店.
- 河野六郎(1968), 『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時報社.
- 韓晔濤(2015a), 「중국어 使動的 兼語動詞 ‘教(叫)’字句와 吏讀의 ‘教(-是)’의 비교연구」, 『中國文學研究』 58집.
- _____ (2015b), 「《迎日冷水里碑》의 중국어 역사문법적인 검토」, 『中國文學研究』 61집.
- _____ (2015c), 「한국한자음 중의 魚韻 반영형에 대하여」 『口訣研究』제35집,
 p. 155-189.
- _____ (2014a), 「고대조선한자음에 반영된 동한~육조대 중국음(2)」 『중국조선어문』제6호.
- _____ (2014b), 『新出土戰國-西韓時期楚地文獻語音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 _____ (2010a), 「고대 한국한자음에 반영된 동한~육조대 중국음(1)」 『口訣研究』 제24집.
- _____ (2010b), 「고대 한반도 고유명사 표기에 나타난 [泰][夬]韻의 韻尾 *-s 의 흔적에 대하여」 『진단학보』 제109호.
- _____ (2009), 『中古音 三等韻의 前舌母音化』, 成均館大學校 中語中文學科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5), 「고대 한국어 차자 표기 “尸” 음가의 고찰」, 『성균어문연구』 제 40집.

許寶華 等篇(1999), 『漢語方言大辭典』(全五冊), 北京: 中華書局.

Norman, Jerry., Chine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ulleyblank, Edwin G.,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UBC Press. 1984.

Trask, Robert Lawrence., A Dictionary of Phonetics and Phonology, USA, New
York, Routledge. 1996.